

주간 3000엔

# 의료기술 '전국 상위' 환자만족 '평균 이하'

## 종합병원 질적 수준 평가 임상질 부문 10대 우수 병원에

정부가 지난해 전국 대형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진료 행위의 질적 수준평가' 결과 전남대병원 등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유명 병원과 함께 10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외래·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자만족도 부문'에서는 평균치 이하의 평가를 받아 서비스 측면에서는 환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전국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곳의 의료서비스와 임상질 수준,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병원의 '임상질 지표'에 대한 평가를 역대 처음으로 실시했다. 임상질 평가는 ▲중환자실(중환자실 환자의 통상상태 등 3개 지표) ▲폐렴(금연상담 시행비율 등 4개 지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수술 절개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2개 지표) ▲모성·신생아 부문 등 4개 부문을 선정,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만이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종합병원 10군데 안에 포함돼, 수도권 유명 병원과의 실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병원 10군데에는 전남대병원 ▲경희대의대부속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이 선정됐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입원·외래환자 50명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A부터 D순으로 구분할 때 외래는 B점을, 입원 C점을 받아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 같은 평가는 ▲화순전남대병원 외래 A점·입원 A점을 비롯 ▲조선대병원 A점·B점 ▲광주보훈병원 B점·B점 ▲순천성가톨릭병원 B점·A점 ▲남광병원 A점(입원환자 조사 미실시) ▲광주기독병원 B점·C점 등 광주·전남지역 7개 평가대상 병원과 비교할 때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만족도가 낮은 이유로 외래환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서,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였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7개 평가대상 병원 모두 진료 및 운영체제와 부문별 업무성과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의료서비스' 부문 전국 35개 우수병원에는 단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질 평가 이후 많은 병원에서 지표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임상질 지표를 활용한 환자진료지침과 전공의 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무자격 택시기사 일제 조사

## 광주시 "시민 안전 위해 철저 단속"

택시운전자자격증도 없는 기간 전과자가 광주 시내에서 3년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본보 22일자 7면)과 관련, 광주시가 무자격 택시기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무자격자' 택시 기사 채용 사업자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위반업체 적발 때 해당 차량 감차 명령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 광주시 교통연수원에서 도급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택시업체 임직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상습 성폭행 무자격 택시기사를 고용한 광주시 북구 동림동 D운수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과업주로부터 "기사가 부족하고 경영이 어려워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량 감

차 명령 및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운전자자격증도 없이 시내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단속

에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선 '무자격자' 승무원 위 적발 때 50만~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급(취업 관련 서류 없이 채용) 사실이 드러날 때 해당 차량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이번엔 여중생 '봉변'

## 택시기사와 그 친구에게 성추행·성폭행 당해

광주 시내에서 전과자나 무자격 택시기사들에 의한 택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2일 승객으로 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정모(4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에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택시를 탄 A(13)양이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영랑군과 전북 부안군

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 후 "A양을 집에 데려다 주라"며 전북 정읍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 전모(45)씨에게 인계했지만, 전씨는 광주로 가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정씨를 붙잡았으며, 친구 전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나원침 (7513) 김종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사 : 061) 337-0571

눈은 안보여도 예쁜 것은 보인다?

○...시각장애인 20대 남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차가 멈춰서는 순간을 틈타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달미.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5급인 A(25)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5분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광산구 신창동 모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대학생 B(여·20)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성추행을 당한 직후 소리를 지르자 시내버스에서 황급히 내려 도주하려고 했지만 비명 소리를 들은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 조서를 눈 바로 앞에서 읽어야 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쓴웃음.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건강체험박람회' 인기

어린이들이 신비로운 인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건강체험박람회'가 22일부터 광주시 북구청에서 열렸다. '임신과 출산'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올바른 건강 정보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21개의 테마별 부스가 설치됐다.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비로운 인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성범죄자 9월부터 전자발찌 채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행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유사 성교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소아성기호중, 성적가혹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 자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 대상에 추가하고 정신성적 장애자의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 원룸 살인강도 잡고보니 10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원룸 강도살인 사건(본보 4월18일자 9면) 범인들이 사건 발생 36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공무원 형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최모(15·경기도 안산시)군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E원룸 1층 김모(35)씨의 집에 침입해 동생 김모(31·세무공무원)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2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변증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10-722-0100

112153000-9999